Question 65

북극도 아닌데 웬 이글루?

항공기 격납고는 항공기를 외부의 여러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항공기 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가 발달하지 못했던 초기에는 날씨 변화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격납고가 필요했으나, 오늘날에는 소음을 방지하고 정비나 점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합니다. 격납고 내부에는 항공기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기둥이 없으며, 천장에는 기재운반용 호이스트나 레일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기가 긴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물에 기둥이 세워지면 항공기를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격납고는 기둥 없이 지붕의 하중을 덜 받는 돔형이나 사각모형으로 모자를 씌우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소음을 방지하고, 정비나 점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격납고 내부에는 항공기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기둥이 없으며, 천장에는 기재운반용 호이스트나 레일 등이 설치되어 있다.

전투기 보호하는 돔형 이글루

이 중 응력[1] 집중이나 하중을 덜 받는 돔형이 격납고 외형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경우는 돔형 격납고를 많이 쓰며, 이를 이글루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는 돔형 격납고 모양이 마치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의 이글루(igloo, 얼음집)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글루는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폭탄이나 주변에서 폭발하는 파편을 막아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1) 응력(應力, stress) : 물체에 외력을 가했을 때 물체 내부에 생기는 저항력

간편한 형태의 격납고도 사용

리베트먼트(Rebatement)에 전투기를 보관하기도 합니다. 리베트먼트는 일종의 방호벽으로 다른 전투기용 격납고보다는 비교적 약하지만, 주변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 날아오는 파편 정도는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 눈, 바람 등으로부터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리베트먼트에 지붕을 설치하기도 하며, 지붕이 없는 리베트먼트에 세워둔 전투기의 경우 눈이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방수천으로 된 덮개로 기체 전체를 씌워둡니다.

한편, 알래스카처럼 추운 지방에는 '노즈 행거(nose hangar)'라는 것이 있는데, 비행기의 코 부분만이라도 주기시키는 곳이란 뜻으로 전투기의 반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격납고입니다. 전투기의 코 부분에는 민감한 레이더나 통신장비가 들어 있어 이 부분만이라도 눈과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